

2017 년 4 월 2 일 “찾아오신 예수님(26) 발을 씻기시는 종되신 왕”(요 13:1-11)

<도입>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13 세기)는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가난의 삶을 보았고 가난한 자들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에게 가난이란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의 충실성이었습니다.

[1] 영광의 책의 시작

13~ 22 장까지 총 9 장은 십자가 죽음 하루 전부터 부활하신 때까지의 일을 말해줍니다. 정점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께 그토록 중대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 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 (직역) 목적을 위하여(또는 향하여). 즉,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의역.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 사랑은 하나님의 목적을 충만하게 이루시는 길이였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녁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겹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 발을 씻기셨습니다. 완벽한 종의 모습입니다. (김세윤 교수) 당시 주인의 발을 씻기는 일이 종들에게조차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종들조차도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하기엔 너무나 낮추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 하자 그는 격하게 대들었습니다. **8 절**,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절대로 = 영원히) 우리의 질문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셔야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또 씻기지 않으면 주님은 나와 상관 없다고 하시는 지에 대한 것입니다.

8 절 후,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2] 왜 낮아지셔야?(예수 구원의 핵심)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어떤 존재와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종보다 더 낮은 종 → 낮고 비천한 자, 약자, 가난한 자, 소자와 동일시하십니다.

마 25:31 이하.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 5 장. 팔복으로 여심.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눅 가난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완벽한 특징을 가진 분으로서 시사하십니다. 가난한 자로서 복을 받는 일의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가난한 자란 하나님께만 의탁하며 사는 자를 일컬어 말합니다.

마 18:5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 아이란 매우 하대 받는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완벽한 종의 일을 구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영생은 낮은 자리로부터 나와서 채워지는 섬김과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높은 사람들이나(권력자, 부자, 지식인 등..) 또는 인간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시스템이 영생에 가까운 삶을 살게 할 것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멘탈리티와 자세를 가지고 섬기지 않으면 결코 세상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감동받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약자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쓸 것을 구하며 힘을 얻어 섬기고 베푸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을 씻어주는 역사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 13:34 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낮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사랑을 받아 섬기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하는 바로 이 핵심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메시지를 간파한

사도들은 모두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14-15 절 참고.**

또 부모가 자식에게, 배우자 간에 약자로서 사랑함을 배우면 영생이 꽃피울 수 있습니다.

[3] 발을 씻기심과 십자가에서 당하신 죽음

이 두 사건은 자신을 낮추심에 관하여 영광의 책의 시작과 끝에서 서로 관통하는 사건입니다.

빌 2:5-11(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

(1) 비하 - 6~8 절 →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자원하는 복종.

(2) 승귀 - 9~11 절 → 낮아진 삶을 살아낸 결과는 하늘의 축복.

8 절 후를 보면 영어 성경에서 You have no part(share) with me. 예수님과 함께 공유할 몫이 없다는 뜻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유업의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롬 8: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예수님은 낮아지는 것만이 미덕이라고 믿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 세상에서 낮은 자, 약한 자가 가야할 길을 당신이 보이시고 약함 속에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배웁니다.

어떤 신이 약한 자와 동일시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약한 자를 통한 구원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는 지식이나 선행이나 기도(수도)를 중요한 요소로서 언급하지만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의 가장 낮고 연약한 자리에 내려와 비천한 자로 취급 당하며 죽음까지 당하면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강조합니다. 기독교를 철학적, 사유적 측면에서 주창한다면 낮음을 통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 바르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맺음>

오늘 본문을 통해 약한 자에 대한 숭고한 구원사적 역사의 서곡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약한 자로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모든 관계와 영역 속에 섬김의 사랑으로 채워가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대로 행하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7 절)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나눔의 질문>

1. 오늘 본문으로부터 감동이 있다면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2. 오늘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있는 낮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주제에 대해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낮은 자로서 낮은 길을 택하시고 죽음 당하신 것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3. 일상의 구체적 관계 속에서 나는 상대보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관계 속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망이 지배할 때가 많습니까?
4. 상대보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도덕성(양심), 훈련으로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에서 이런 예를 보았다면 한번 나누어 봅시다(사랑하므로 낮아짐).